

[로병사의 이야기](2)

# “당과 인민이 불러만 준다면 또다시 전쟁터에 나갈 것”

## —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 참전 로병사 96세 랑생속을 만나보다

“당은 조실부모하고 류리걸식하던 저를 해방군에 받아들여 합격된 군인으로 키웠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당과 인민이 불러만 준다면 저는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무찌르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싶습니다!”

최근, 연길시 의란진 모 촌에 살고 있는 96세 고령의 랑생속(朗生续, 만족) 로인은 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격동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 참전 병사인 랑생속로인은 현재 연길 ‘로병사의 집’ 로병사 의무강연단의 최고령 로병사이다. 최근 몇년간, 랑생속은 ‘로병사의 집’ 당지부 서기이며 리사장인 서숙자의 초대를 받고 의무강연단에 참가하여 연길 시내 여러 중소학교와 당정기관, 사업단위, 부대들을 찾아다니며 흥색이야기를 선전하고 있다.

“비록 77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1947년 7월 13일, 격동된 심정으로 입대하던 장면이 기억에 생생합니다.”라며 랑생속은 말을 맺었다.

1928년 12월에 왕청현 하마탕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9개월 만에 모친을 여의고 15살 되던 해에 부친까지 돌아가자 동남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1947년 7월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군인은 가슴에 붉은 꽃을 단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어린 랑생속은 부대에서 지식을 배우면서부터 비로소 군인은 국가와 인민의 안녕, 새 중국의 창건을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성스러운 직업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한 랑생속은 선후로 47군 직속 포병반, 포병 5사 43단 전사로 로사대회전과 신개원전투 등 수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 참



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적 있는 96세 고령의 랑생속(朗生续, 만족)로인.

가하다가 새 중국의 창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랑생속은 전쟁터에서 쌓은 풍부한 통신 경험과 전자기술 감습반에 참가하여 련마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전화병으로 성장했다.

1951년 1월, 호북성에서 주둔하며 휴양하던 랑생속은 당중앙의 호소에 호응하여 항미원조에 참전할 것을 신청했고 부대를 따라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그동안 국내에서 갈고닦은 전투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철원 제 5차전역, 개성보위전 등 전역에 참가하면서 부대의 전화통신을 시종 원활하게 보장했다.

그러던 1952년의 어느 날, 랑생속의 소속 부대는 고왕산으로 진입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랑생속의 회억에 따르면 그날 전투는 각별히 치열했다. 공중에서 배회하던 적군의 폭격기가 계속 포탄을 투하하여 전우들은 엄청난 부상을 입었는데 앞진 데 덮친 격으로 전화선마저 적들의 폭격에 끊겨 최전방이 지휘부와 완전히 연락이 단절되었다.

전화통신의 원활을 보장하는 것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인츰 통신선을 복구하라고 두 전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두 전사도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적들의 가장 큰 공격 목표였다. 두 전우가 꼭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전쟁터에서 1분의 지체로도 승패가 가려질 수 있기에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나와 반장이 직접 가기로 했다.”

그렇게 랑생속은 간단한 눈인사로 전우들과 작별한 채 포화 속으로 뛰어 들었다.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총탄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요리조리 피하며 겨우 전화선을 찾았지만 적들의 폭격에 전화선은 여러 구간이 끊어져 있었다.

한구간 또 한구간을 손조롭게 잘 복구해나가다가 성공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한구간에 사용될 전선이 부족했

다. 게다가 랑생속은 적들의 포탄에 등에 부상까지 입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인체도 도체로서 전기가 흐를 수 있다.”고 했던 교도원의 말이 번뜩 생각났다. 그는 심한 고통을 참으며 앞드려 이를 악물고 끊어진 전선 량끝을 손에 쥐고 전류가 몸으로 통하게 했다. 전류는 낮았지만 온몸에 통증이 몰려왔다. 포탄에 맞아 입은 상처로 인한 통증인지 아니면 전류로 인한 통증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1분, 2분... 그렇게 30분이 지나 결국 통신은 회복되었고 그전 전투에서 우리 군은 승리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전기가 몸으로 통하여 팔은 굽힐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다.”고 랑생속은 말했다.

전투가 끝나서 그는 사단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이는 그에게 남은 전쟁터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되었다.

“이것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여한 휘장이고 이것은 새 중국 창건 70돌에 받은 휘장이며 이것은 공을 세웠을 때 받은 군공메달이다...”

지금도 행복한 만년을 누리고 있는 랑생속은 앞가슴에 달려있는 자랑스러운 메달과 휘장들을 쓰다듬으면서 당과 국가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서슴없이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랑생속은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피를 흘리고 희생된 수 많은 전우들에 비하면 100살을 눈앞에 둔 본인은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새 중국의 창건과 지금의 행복한 생활은 쉽게 얻어온 것이 아니다. 혁명로전사로서 비록 몸은 늙었지만 전쟁터에서 남긴 추억과 희생된 전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뚜렷하다. 나는 지금도 ‘로병사의 집’에서 불러주면 후대들에게 혁명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분별하여 맑은 바 일터에서 빛을 받으며 더욱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바란다.”고 랑생속은 말했다.

1953년 5월에 포병 43탄 지휘관 부패장으로 발탁된 랑생속은 정전협정 체결 후 부대를 따라 귀국했다. 1954년 8월에 하남군구 훈련단 3명 6련에서 감습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에 부패장 계급으로 귀향전업건설군인이 되어 고향인 연변에 돌아왔다. 그는 선후로 촌 치보주임, 촌장 등 촌간부직을 맡고 수십년 동안 고향마을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여력을 불태웠다.

/유경봉 정현관 리전 오건 기자



연변주적십자회

## ‘전국 적십자계통 선진집단’으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적십자회 제 12차 전국회대표대회가 북경에서 소집되었다. 대회에서 32개 ‘전국 적십자계통 선진집단’과 10명의 ‘전국 적십자계통 선진개인’을 표창한 가운데 연변조선족자치주 적십자회가 ‘전국 적십자계통 선진집단’ 칭호를 수여받았다.

최근년간 주적십자회는 주당위와 주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상급 적십자회의 세심한 지도 아래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적십자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당과 정부에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법에 따라 작책을 리행하며 책임을 다했다. ‘인도(人道), 박애(博愛), 헌신(奉獻)’의 적십자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여 연변의 적십자사업

이 부단히 진보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주적십자회 당부 서기이며 상무부회장인 박익선은 “우리는 이번 대회의 정신을 참담케 관찰하고 영예를 동력으로 삼아 주당위와 주정부의 중심사업에 긴밀히 둘러싸고 민생보장에 봉사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의 생명건강을 수호하는 등 면에서 적십자회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시대의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새로운 장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오건기자

## 연길, 14년 연속 앞당겨 열공급

15일, 연길시의 부분적 집중열공급기업들이 연속 보이아에 접화를 시작했다. 이로써 연길시는 올해까지 연속 14년간 열공급을 앞당겼다.

당일, 국가에너지그룹 길림토티아 열전발전유한회사 연길열전소 집중 제어실의 스크린을 통해 2호 증기 터빈발전기의 제반 수치와 보이아 내부의 연소 상황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 열전소 발전관리부 리홍남 주임은 “우리는 열병합 발전기를 통해 전력 생산과정에서 남은 열에너지를 유효한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도시 주민들에게 열공급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에너지그룹 길림토티아열전주식유한회사 열전소는 이날 9시에 정식으로 보이아에 접화하여 열공급을 시작했다. 현재 기업은 24시간 고객사 열전전화를 개통했고 주민들의 열공급 문제를 제 1시간에 처리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의 법정 열공급 기업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총 183일이다. 올해 연길시의 도시 열공급 총 건축면적은 4,115만 3,900 평방미터에 달하며 열공급 경영단위는 총 8개이다. 연길시는 열공급에 석탄 도합 53만 3,000톤을 사용할 계획이며



10월 15일까지 이미 32만 5,000톤을 입고했는데 입고률이 61%에 달한다. 겨울철 열공급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집중열공급기업들은 ‘동병합치(冬病夏治)’의 원칙에 따라 여름부터 이미 열공급 설비와 로후 배관망을 수리, 개조했고 총 101킬로미터에 달하는 열공급 배관망을 신설, 개조했다.

연길시공공사업봉사중심 주임 동명은 “열공급 주관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리용한 감독관리, 통보검사, 현장순찰 및 종합평가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집중열공급회사를 감독하고 기업의 열공급 질과 봉사 수준을 향상시켜 군중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현관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 ‘연길로인뢰봉반’ 로인들 ‘홍석류의 집’ 견학



일전, ‘연길로인뢰봉반’의 14명 로인대표들이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에 위치한 ‘홍석류의 집’을 찾아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견학에서 ‘연길로인뢰봉반’의 로인대표들은 사회구역 사업일군들과 함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다지기과 관련해 뜻깊은 체험을 했다.

얼마전에 전국 민족단결진보 선진 개인의 영예를 지니고 북경에서 돌아온 연길시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 단영사회구역에 위치한 왕숙청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연길로인뢰봉반’ 로인들을 따뜻이 맞이했다.

현재 연길시뢰봉학습자위원회 사회구역 협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왕숙청은 류창한 조선말로 “우리는 한집식구입니다.”라고 하면서 로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애를 기울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푹푹 뭉쳐서 조화로운 사회구역을 건설한 실정들을 상

세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왕숙청의 지휘로 ‘연길로인뢰봉반’의 로인들은 함께 〈붉은 해 변강 비추네〉와 〈따라배우자 뉘네〉 등 가요들을 열창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보고 듣고 춤노래로 이어지는 견학 행사는 로인들에게 참신한 인상을 남겼으며 중화민족대결의 행복감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했다.

‘연길로인뢰봉반’ 한족 회원 장계분은 “우리 연변은 여러 민족이 다정하게 살아가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뉘네의 조선족 언니들은 너무도 우수하고 친절하다.”며 소감을 발표했다.

로인들은 이번 견학에 참가하여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며 서로 소감을 토로하였다.

/ 박철원특약기자



‘연길 로병사의 집’ 로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긴 로병사 랑생속 (앞줄 오른쪽 두번째)

## 조선족 포도원, 양로원 로인들에게 중앙절 선물 전해

10월 10일, 중앙절에 즈음하여 매하구시 흥령산행운인포도채집원의 권중호 사장은 매하구시조선족양로원과 매하구시 흑산둔진 보산촌 신망애양로원을 찾아 로인들에게 유기농 포도를 전달하고 그들을 위문했다.

로인들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유량한 전통이다.

부모님 생전에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못한 유감이 남았던 권중호 사장은 그 유감을 풀기위해 예전부터 부근의 조선족 양로원을 방문하여 로인들을 찾아뵙고자 했던 차에 국경철 련휴를 바쁘게 보내고 한숨 돌리게 되고 때마침 중앙절이 다가오자 이처럼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매하구 시내에서 10여킬로미터 떨어진 행령진에서 아침 일찍 직접 차를 운전해 우선 매하구시 북민가두 행복촌에 위치한 매하구시조선족양로원을 찾았다. 이 양로원에는 현재 100여명의 조선족 로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식, 친인들이 외국이나 연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명절이면 자식이나 친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컸다. 로인들의 이런 정황을 잘 료해하고 있는 권중호 사장은 자신이 직접 재배하고 알뜰히 가꿔 수확한 유기농 포도를 명절의 선물로 로

인들에게 드렸다. 료해에 따르면 권중호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매하구시 흥령산행운인포도채집원의 포도는 매하구시에서 인기가 많아 민속절이나 전시회 때마다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로인들은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를 연속 입에 넣으면서 난생처음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맛본다며 희색이 만연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매하구시조선족양로원의 정철호 원장과 그의 어머니는 권중호 사장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흑산둔진 보산촌 신망애양로원이었다. 신망애양로원 김춘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양로원에는 40여명의 조선족, 한족 로인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계시는 로인들이 많다. 권중호 사장은 김춘자 원장에게 명절의 선물을 전하면서 급속 곤란이 있으면 꼭 있는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손저어 바라는 김춘자 원장을 뒤로 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귀로에 오른 권중호 사장은 “앞으로도 이런 위문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광호특약기자, 김수동